

이민 2세의 자기정체성 찾기

《네이티브 스피커》
펴낸 이창래씨

갈등을 겪고, 직설적이고 외향적인 백인 부인과의 헤어지게 된다. 위태로운 혼돈의 과정 속에서 그는 결국 자기정체성을 찾게 되고, 현실과 핏줄의 이중적인 압력을 극복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 소설은 결국 제 자전소설입니다. 미국문화에 동화되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친 한 이민자가 어느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비롯된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민 2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정신과의사로 정착한 아버지보다 끝내 미국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채 3년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많다. 여고시절 활발한 성격에 꽤나 유명한 농구선수였던 그녀는 미국에서 적응을 못해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제게 미국식 이름을 지어주고 미국인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끝내 거부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이 소설을 쓰는 내내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작년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신대’에 관한 소설을 쓰리라 마음을 먹고 지금은 바쁜 중에도 톱툰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허연 기자



“5살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어머니가 은행이나 슈퍼마켓에 갈 때면 저는 꼭 통역사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동화되기 위해, 주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어에 매달렸고 그 과정에서 자기정체성에 대한 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출간되어 극찬을 받은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한국어판을 출간한 재미교포 2세 이창래씨(29, 오리건대학 문예창작과 조교수)는 한국인의 얼굴을 갖고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고뇌를 담은 이 소설로 미국내에서 “서정적이면서도 신랄한 언어로 이민세대와 2세들의 고뇌를 용해시킨 수작”(뉴욕 타임스)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가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나와 예일대학을 졸업했고,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헨리 박처럼 백인여자와 결혼했다. 그는 정체성의 고통을 겪었던 성장기에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척(Chuck)’을 버리고 ‘이창래’라는 한국이름을 고수했다. 그의 미국생활은

정체성과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저자의 고뇌는 그의 소설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주인공 헨리 박은 야채상으로 미국에 정착한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겪으며 성장한다.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아 있는 부모를 경멸하면서 사설탐정 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는 뉴욕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한국계 미국인을 뒷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이민자들의 정치권 진입을 못마땅해 하는 백인들의 스파이가 된 그는 심한



연구파 미용인의 아름다운 삶 가꾸기

《머리에도 표정이 있다》
펴낸 이은정씨

것이 계기가 돼 이 책을 펴냈다는 이은정씨는 “무엇보다 건강한 모발이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의 첫번째 관문”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또 끊임없이 디자인을 연구하는 이씨의 프로정신과 ‘끼’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재기발랄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를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패티김·오미희·주병진·이덕화·이계진·장옥진 등 여러 유명인사들의 머리 모양을 그녀만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변형시키는가 하면, 이씨가 디자인한 머리 덕분에 화해한 어느 부부의 이야기 등이 실려 있어 “머리모양과 의사표현의 함수관계”에 눈뜨게 해준다.

얼마 전 분당에 ‘이은정 헤어클리닉’을 개업한 이씨는 “손님이 요구하는 머리 모양이 키나 생김새, 이미지와 어긋날 때는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머리에 손을 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 머리를 디자인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민도 함께 들어주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한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즐거워 카운셀러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천성” 때문인지 대학의 미용강좌며 이미지 메이킹 등 오라는 데가 많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씨는 나무랄 데 없는 프로다. —배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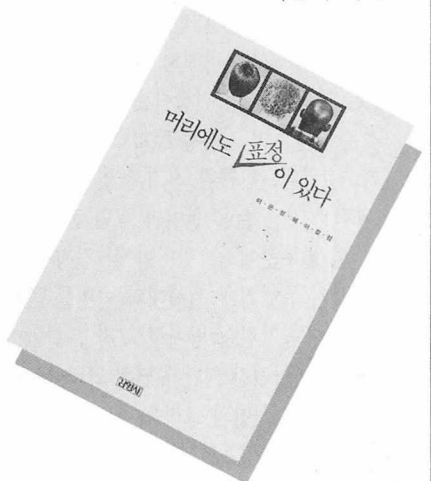
찰랑찰랑하게 늘어뜨린 긴 생머리, 풍성한 컬을 넣은 퍼머머리, 목선이 상큼하게 드러난 커트머리 등 갖가지 머리 모양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헤어디자이너 이은정씨(52, 이은정 헤어클리닉 원장)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듯 스쳐가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며 전체 분위기를 흡입껏 기억해뒀다가 ‘아!’ 하는 감탄사가 나올 때까지 디자인에 몰두하는 연구파 미용인이다.

그가 얼마 전에 펴낸 《머리에도 표정이 있다》(김영사)는 전문인의 시각에서 모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삼 자신의 머리를 거울에 비춰 보게 만든다.

“머리가 인물의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머리 모양이야말로 첫 인상에 결정타를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모발관리를 잘못하면 아름다운 머리 모양을 기대하기 어렵지요. 어떤 사람은 기분전환을 한답시고 꼬불꼬불하게 퍼머했다가 싫증나면 스트레이트로 펴고, 염색이 맘에 안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탈색을 하니 예민한 머리카락이 어디 견뎌내나요?”

기분 내키는 대로 자르고 볶고 풀어서 머리결이 마구 찢기고 깎여간 사람들이 “멋있게 해달라”며 찾아오면 이씨는 우선 모발 건강관리법부터 일러준다. 지성·중성·손상·염색모발 등 머리 성질에 적합한 샴푸 선택부터 머리카락의 특성,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는 스타일 연출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손님 개개인에게 적합한 모발관리법 책자를 나눠주기도 한다. 이 조그만 책자가 손님들 사이에 인기를 끈





조선의 풍습 읽어낸 '하멜시대' 이야기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펴낸 강준식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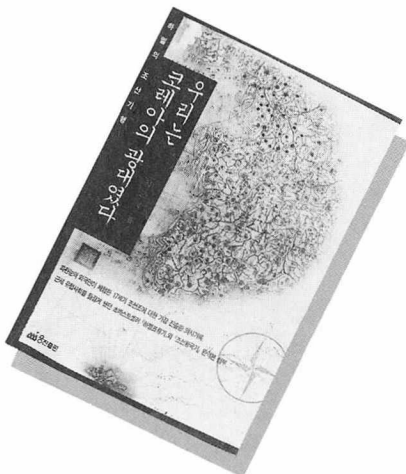
분석하고 하멜 일행이 살았던 현지답사를 통해 17세기 중엽 조선의 사회상과 외교관계, 조선인의 풍습과 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밖에도 하멜일지를 통해 당시 조선의 기후, 지리, 풍습, 종교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부패, 적당주의, 태만 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리들의 태도며 낮은 나그네도 뿌리치지 않는 아름답고 따뜻한 우리 선조들의 인정많은 심성도 읽어낸다.

“하멜표류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 일대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더군요. 하멜의 조선표류를 전후하여 화란을 통한 서양과학의 습득을 착실히 해왔던 일본에 비추어볼 때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집니다.”

과학문명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들이, 이후로 줄줄이 이어지는 국권상실과 분단과 가난, 정치적 혼란의 뿌리가 아니겠냐고 진단하는 그가 ‘세계화’를 운위하는 현재 시점에서 새삼스레 하멜시대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남정 기자



〈스페르베르호가 켈파트섬에서 실종된 1653년 8월 16일부터 이 배의 승무원 8명이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한 1666년 9월 14일까지 이 배의 생존자인 장교 및 선원들이 겪었던 일과 조선왕국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의 풍습과 그 나라에 대한 일지〉.

다소 긴 제목의 이 보고서는 17세기 중엽,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표착, 13년을 살다 탈출한 동인도회사 소속 스페르베르호의 서기 헨드릭 하멜이 작성한 일지다. 우리에게 《하멜표류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보고서에 대한 연구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196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한때 정치권과 언론계에 잠시 옷깃을 적시기도 한 다양한 이력의 작가 강준식씨(48)가 펴낸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웅진출판)가 그것.

“하멜 일행의 표류가 우리나라 역사의 행로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외국인을 대하는 조선인의 태도와 외국의 과학과 기술의 수용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한 첫번째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가 하멜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내가 사랑한 도선》에 이어 펴낸 이 책은 하멜이 남긴 두 권의 저서 《하멜표류기》와 《조선왕국기》를 토대로 하고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자료와 일본 및 화란측 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꼼꼼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왕에 이루어졌던 국내의 연구들을 비교



‘앵커우먼’이 전하는 감사의 마음

《자신의 날개로 날 때 아름답다》
펴낸 정미홍씨

분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출판사측의 완강한 반대로 상당한 분량이 빠졌다는 것이다.

“지금이요? 보다시피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진 못하겠네요.”

병상 위에서 세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전력 때문일까. 지난 선거에서 조순 후보의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바 있고, 현재 시청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정미홍씨는 결코 건강에 대해 자만하지 않는다.

“물론 방송일을 그만 뒤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잖아요. 전 이 일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생각이구요.”

과거,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에 실어보내는 일만 평생토록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노라고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던 정미홍씨는 난치병을 앓게 되면서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잃어버린 것들 대신에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된 듯하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 그리고 혈육 못지 않은 친우들까지……. 그녀는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웃고 있다.

—한동림 기자

뉴스 앵커로 텔레비전 화면에 자주 등장하곤 하던 정미홍씨(37)가 자전적인 글을 책으로 엮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고마운 분들께 그간 못다 했던 말들을 전하고 싶기도 했구요.”

인생을 70년이라고 친다면 벌써 절반을 살아버린 셈이 아니냐며 웃어보이는 그녀는 이 책에서, 방송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시험을 치르던 이야기, 신입 시절의 에피소드, ‘앵커우먼’이 되기까지의 과정, 루푸스(전신성 홍반성 낭창)라는 희귀한 난치병과 투병하던 이야기, 그 생사의 기로에서 알게 된 고마운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눈물겨운 사랑 등을 꼼꼼하게 적고 있다.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방송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건들을 언급해야 할 대목에 이르면 아무래도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기왕 책을 내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덮고 가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정미홍씨는 되묻는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만 비로소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말에는 힘이 실려 있다.

정미홍씨는 루푸스로 인해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구술을 토대로 써야 했다고 털어놓는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까닭에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책을 쓰면서, 여러 고마운 분들과 그간의 사정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그녀는 그 이야기를 책에 모두 실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쉬워한다. 그 고마운

